

‘冥想 서적’ 왜 많이 읽히나

신비사상가의 강론집에서 신과학운동까지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산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삶의 길 흰구름의 길」 「수피의 가르침」 「침묵은 말한다」……. 요즘 서점에 가보면 우리는 흔히 이처럼 독특하면서도 의미심장한 제목을 단 번역서들을 상당수 발견할 수 있다.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에 항상 한두권씩은 꼭 끼어 있는 이러한 책들은 대개 동양(특히 인도)의 신비사상가들의 저작이라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붙여 넣어주는 책’이라는 긍정적 인 평가와 ‘심오한 동향정신을 대중취향에 맞게 인스턴트화한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이 계통의 책은 이제 ‘운동권 독자층’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일정한 독자층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보다 구미에서 더 인기

‘명상서적’이라 통칭되는 이 분야의 저서가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후반부터. 78년 시인 정현종씨가 크리슈나무르티의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정우사)를 번역·소개한 데 이어 석지현스님이 번역한 일련의 라즈니쉬 저작들이 일지사에서 출판됨으로써 우리 독자와 첫 상면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분야 저서의 발간이 결정적 붐을 이루게 된 것은 역시 82년 출판된 크리슈나무르티의 「자기로부터의 혁명」(권동수 옮김, 범우사)이 거둔 상업적 성공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 책이 지금까지 15만부가 팔리는 등 베스트셀러로 자리를 굳히자 여기저기서 비슷한 성격의 책들이 우후죽순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흔히 ‘영적 스승」(구루)이라 불리는 이들 신비사상가들은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요가, 초교파 등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 활동 영역도 인도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 유럽 등지로 광활하게 퍼져 있다. 따라서 이들을 일괄적으로 묶어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지명도나 국내에 소개된 양으로 판단할 때 라즈니쉬와 크리슈나무르티를 먼저 손꼽을 수 있다. 이 두 사람은 그 개성에 있어서 상당히 상이한 편차를 드러내는데, 라즈니쉬의 강론은 대단히 문학적 수사가 풍부하고 에피소드를 즐겨 인용하는 편이라면 크리슈나무르티의 강론은 담백하면서도 직관적인 통찰이 번득인다. 라즈니쉬는 대개 노자, 장자, 예수, 까비르, 헤라클레이토스 등 동서양에서

성인·현인으로 칭송되는 인물들의 저서, 어록을 텍스트로 해서 해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크리슈나무르티는 특별한 텍스트 없이 일상적인 삶을 둘러싼 크고 작은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크리슈나무르티는 30종 정도의 저서 가운데 15종 정도가(중복 번역이 많다), 라즈니쉬는 150종 정도의 저서 가운데 30종이 각각 국내에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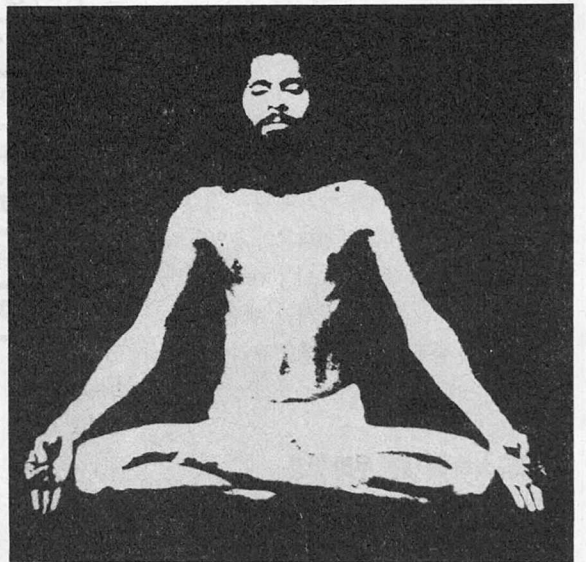
이밖에 국내에 소개된 신비사상가들의 저서로는 TM명상법을 창시, 수행법에 많은 관심을 쏟은 마하리쉬 마헤쉬의 「초월의 길 완성의 길」을 비롯, 「현신을 통해서 신에게 접근한다」고 한 요가난다의 「인간의 영원한 탐구」 「영적일기」, 람다스의 「깨달음의 여행」, 구제프의 「위대한 만남」, 스와미 라마의 「호흡의 신비」, 수피의 「수피의 가르침」, 라마나 마하리쉬의 「나는 누구인가」를 들 수 있으며 이밖에 라마 크리슈나, 카스타네타, 달라이 라마(티벳)의 전기와 어록도 출판돼 있다. 최근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끌고 있는 책으로는 바바 하리다스의 우화집 「성자가 된 청소부」와 묵타난타의 제자가 쓴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등이 있는데 앞으로 트롱과, 루미, 스즈끼 다이세스의 저작들도 곧 소개될 예정으로 있다. 금세기 이 계열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인물들이 모두 100여명에 이른다고 볼 때 아직도 파해야 할 광맥은 엄청나다고 하겠다.

‘禪소설’ ‘禪만화’도 선보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의 책들을 전문적으로 내는 출판사는 정신세계사와 명상이 있으며, 고려원은 ‘다르마총서」를, 청하는 ‘라즈니쉬전집」을 펴내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김영사, 일지사, 까치, 범우사, 흥성사, 삼진기획 등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펴내고 있으며 불일출판사, 경서원, 대원사에서는 불교와 관련된 명상서적을 출판하고 있다. 최근엔 그 장르도 보다 다양해져서 해담출판사는 禪소설이나 禪만화를 선보이고 있기도 하다. 출판사측에서는 명상서적은 1종당 1만부에서 2만부 정도는 무난히 나간다면, 고정독자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 이 분야의 책을 출판하는데 큰 힘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명상서적이 80년대 우리 독서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전

내면으로의 도피인가,
아니면 새로운 현실에
대한 탐구인가.
명상서적이 붐을
이루는 것은 그 책에 담긴
내용의 진위를 떠나
우리 사회의 숨겨진 속성을
알게 해주는 좋은 예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라즈니쉬나
크리슈나무르티는 과연
‘현대의 성자」인가
아니면, ‘위대한 사기꾼」일
따름인가.



‘육체의 우주 속으로 들어간다」는 요가 수행을 하고 있는 수련자의 모습.

문가들은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이 분야의 책을 10여종 번역한 박상준씨는 “80년대 들어 물질적 풍요가 어느 정도 허락되자 중산층 독자들이 서서히 본질적인 것에 관한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진단하면서, 이들 책은 대중취향적인 에세이와 전문적인 철학서적으로 지나치게 양분돼 있는 우리 출판풍토에서 일종의 완충역을 해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즉 ‘깊은」 이야기를 ‘쉽게」했다는데 이들 책의 미덕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약간 다른 차원에서 청하 대표 장석주씨는 명상서적이 우리사회에 결핍돼 있는 ‘삶의 자양분」을 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명상」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 “사회와 자아의 관련을 너무 추상화, 관념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자신의 출판사에서 내는 라즈니쉬전집도 일단 12권으로 마감지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맹목적 이상화·신비화 경계해야

K신경정신과의원 원장 정근재씨는 “후기 산업사회의 한 특징적인 징후가 바로 내면으로의 도피”라면서 ‘역사 현실의 지나친 단순화」를 명상서적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몇몇 신비사상가들을 ‘세계의 스승」이니 ‘현대의 성자」니 하면서 이상화하거나 맹목적 광신상태에 빠져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소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시인 河在鳳씨도 “인도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을 때 미국 오레곤시의 사설왕국에서 열두대의 톨스로이스를 몰고 다닌 라즈니쉬의 처사는 아무리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대해 명상 대표 이준호씨는 「丹」이 상업적 성공을 거두자 한때 仙道계열의 책이 쏟아져나왔음을 상기시키면서, ‘명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초하고 있는 관심이나 비판은 결국 자동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명상서적의 바과학적, 비사회성을 문제삼는 일부의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지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최근 서구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과학운동」이나 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불교경제학도 넓은 의미의 명상 분야라고 볼 수 있다. 동양과 서양의 화해로운 만남, 그리고 그 과학적 사회적 기초를 다지는 작업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과제이다.”

결국 ‘명상」에 대한 관심은 근대 이후 세계를 주도해온 서양문명에 대한 근원적 반성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한 명상서적 중에 의학, 생태학, 정신물리학, 심리학과의 연계를 파고든 저서가 눈에 띄는 것은 그런 점에서 반가운 일이라고 하겠다. 결국 앞으로의 과제는 ‘명상의 신비화」가 아닌 ‘명상의 생활화」에 달려 있다고 보여진다.

—남진우 기자